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길라잡이 문화국 주최

<자전인의 밤> 자료집

문화국장: 이재민

문화국원: 김주연, 최희정, 김민아, 이하린, 김가경, 양은서, 유승원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길라잡이 문화국 주최

<자전인의 밤> 자료집

1. 이황 교수님 강연- 자유전공학부의 과거, 현재, 미래



자유전공학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적통을 계승한 학과라고 할 수 있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밝히는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공선사후 정신은 특히 고려대학교를 개혁한 김성수 선생이 한 말씀이지만, 사실 선공후사를 변형한 말씀이다. 이것이 고려대학교의 정신이자 창립 멤버인 법과대학의 정신이다.

더 이상 공적 분야에만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사적 분야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많은 인재들이 진출하는 분야이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공선사후의 정신을 대한민국 전체 사회에서 그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분야와 사적분야를 아우르는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적분야 뿐만 아니라 융합적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법학적 정신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사회과학과 이공계를 포함하여 제1전공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자유전공학부는 공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를 포괄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는 수월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과거 10여년간 자유전공학부 졸업생들이 많은 분야에 진출하여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초기에는 사실 자전에 진학한 학생 중 로스쿨 진학, 행시 준비 학생이 아주 많지 않았다. 대략 30퍼 정도였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방법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법조인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단계에서 자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유전공학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를 관통하는 큰 이슈는 디지털 플랫폼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경제법 영역에서도 미국, 유럽에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독점적 디지털 플랫폼들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이 때문에 중소기업인이 몰락하고, 과도한 경제집중으로 민주적 경제시스템의 붕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다 폭넓고 자유로운 경제시장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특히 가까운 미래는, 디지털 사회가 선도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자밤에서의 메타버스 양식을 끌어들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디지털 사회는 다분히 소프트한 성격을 가진다. 특별한 법 집행 내지는 유교적이고 딱딱한 사회구조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연하게 과거와는 달리 대등한 관계가 누적되며 융합적 발전을 거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경험한 빠른 정부 개발속도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세계적 경쟁에서 이기고 발전하려면 이러한 발전

추세를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최근 우리 경제사회가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체는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역시 공선사후의 정신을 디지털 사회에서도 관통하여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자전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깔고 우리의 앞길을 개척할 도구를 갖춰야 한다. 규범학과 제1전공과의 결합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한 가지의 학문만을 갖춘데 비해, 1전공에 법학 지식을 깔아 공선사후의 정신을 함양하고 더 큰 무기를 가지게 된다. 첨단 3개 학과 학장님들께 자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공통적으로 굉장히 반가워했다. 3개 학과장님들이 전부 똑같이 얘기하셨다. 우리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 선배들이 그만큼 자전의 명예를 걸고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한 성과이고, 고대를 앞에서 이끌어온 성과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하지만, 공적 분야의 지도자 정신과 융합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자전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생들이 자전 교우회를 질문했다. 현재까지 자전 졸업생이 많지 않아, 현재 교우회는 과거 법과대학 선배들을 모아 명예 교우회를 형성했다. 언젠가는 자전이 주체적으로 교우회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은 졸업하고 10년간은 매우 바빠 교우회에 신경 쓸 틈이 없을 것이다. 당장에는 수가 충분하지 않아도 앞으로 점차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대학 교우회는 법전원 시작할 때 그들이 후배가 맞느냐 논란이 되었다. 후배 없는 선배는 없다. 그래서 법과대학 교우회는 법전원 학생들을 법과대학 교우회 멤버로 인정하는데 반대가 없다. 자전도 마찬가지다. 융합 지향하는 특성이 법전원은 모자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자전에서 메워야 한다.

나는 코로나를 거치며 쌓아온 경험치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지속적으로 1960년대부터 세계화가 시작되고 자유화가 시작되는 등의 과정을 난 거쳐왔다. 그러나 2008 금융위기 이후 이 세상의 발전양상이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 발전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법학을 공부하는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공선사후의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선도하는 인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업에 충실하라는 것이 학점을 잘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인격과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많은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다.

Q: 자전 학생들에게 대학생 때 꼭 해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A: 온몸을 불살라 몰두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한 가지 활동을 해보라.

Q: 변호사 시험이 레드오션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전 학생으로서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스스로 전문성 쌓아 올려야 하는 시대가 됐다.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시대는 끝났다.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전문가, 이를테면 정치 전문가, 컴퓨터 전문가 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1전공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 법조인이 좁은 의미의 변호사에 갇혀 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나라도 이미 변호사 수가 2만명이 넘고, 법조계에서 법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시대는 끝났다. 로스쿨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법조계에 남아있지 않고 월스트리트에서 딱 10년 일하고 조기 은퇴하고 열심히 노는 사람도 있다. 정말 뛰어난 학생들은 법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둔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여태까지 법조인이 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끈 사례는 많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여러분은 로스쿨에 가서 법조인이 되더라도 라이선스를 가지고 또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선배님들과의 전체 대담

선배님들의 동의에 따라 실명과 학번, 직장명에 대한 정보는 상이합니다.

1조 복금태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14학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자유전공학부가 법학과 다른 전공을 모두 배우는 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실력향상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됐다면 한편으로는 다른 과에서는 갖기 어려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목적의식 또는 공적의식 같은 것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제나 경영학, 법학을 전공하며 왜 나는 공부를 해야하는가, 나는 나중에 공적분야에서 일 하면서 사회에 어떤 선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운다, 또 이런 공부들이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심어주어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전공학부가 많은 도움 된 것 같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아직 로스쿨 재학생이라 직업은 없다. 다만 로스쿨에 오게 된 것은 공적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었다. 기왕 공익을 위해 일하는 것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학생회 활동한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회칙을 갖고 토론했던 경험을 통해 법, 규칙이 나와 잘 맞음을 느꼈다. 또, 다른 단체와 행사 기획하면서 생기는 갈등,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경험을 겪으며 법적으로 토론하는게 본인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제일 잘 할 수 있는 공적 분야가 법이라고 생각해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21, 22살 때 학생회 활동 열심히 하다보니까 내가 지금은 큰 공익을 위해 일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차 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밟아나가야 할 단계들도 있으니까(공부, 스펙, 입시) 자기계발도 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속한 집단,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이런 게 공익인데, 학생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 있으니까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내 공부(자기계발)와 봉사(사회에의 헌신) 사이에서 고민했다. 학생회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 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양식이 될 것 같다.

2조 김재혁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14학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재학.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고등학교 때부터 법조인이라는 꿈 가지고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했다. 법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뜯구름을 잡고 있었으나 자유전공학부 들어와서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과정 통해 법학 수업을 많이 들으며 구체적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확고히 잡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아직 로스쿨 재학생이고, 어릴 때부터 법조인이 꿈이었어서 크게 하고 싶은 말은 없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22, 23살에도 치열하게 고민했다. 경영학과였는데 CPA 시험은 길이 아니었고, 전공을 뒤흔들고 선택한 건가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때가 법전원 진학에 대한 결정적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21, 22살에는 어떻게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주로 했고 23살부터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찰했다.

3조 000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12학번. 전주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진로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제1전공으로 경영학과 진학했으나, CPA, 행시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 공부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선택했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 중에 왜 재판 연구원을 선택한 것은 이 재판 연구원이 하는 일 중에서 판결문 작성과 관련한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20대 초반에는 연애 고민을 주로 했다. 3학년때부터 진로를 고민했다. 잘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이 들어 법전원 진학을 고민했다. 그러나 안가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진학하게 되었다.

4조 000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11학번. 농업인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를 했었고 현재는 축산 농가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지.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자유전공학부 들어와서 진로선택에 많이 도움 되었다. 처음에 자유전공학부에 들어왔을 때 법조인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다가보다는, 입시를 준비할 때 과를 미리 선택하는 과정이 없어서 경제가 뭐고 경영이 뭔지 몰랐어서 좀 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다. 법조인도 관심이 있었고, 금융권도 관심이 있었고 여러 군데 관심이 많았는데 직접 공부해보며 내가 진짜로 재밌게 하면서 잘하는 게 뭔지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학과를 가게 됐고, 지금의 진로도 찾게 된 경우라 자유전공학부를 선택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뚜렷한 목표를 갖고 대학을 입학한 게 아니었기에 시행착오가 많았다. 공거리를 수강하며 내가 잘하는 분야가 경제학과 법임을 알게 되었다. 경제학을 선택해서 진로 탐색을 하고, 나의 소질을 활용해서 가장 빠른 아웃풋이 가능한 분야를 고민했다. 그래서 행시를 준비해서 합격했다. 빨리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뭘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빨리 일할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췄었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라 고민 많았다. 1학년 때는 전공선택을 고민했다. 경영이 너무 안 맞아서 경제를 선택했다.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고민했지만, 나중에는 학회도 하는 등 경제학과에서의 생활을 만족하게 되었다. 행정고시를 준비할 때 로스쿨 갈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행시를 한 번 떨어지고 나서는 내년에 한 번 더 해도 되나 고민했다.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다른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에서 합격자도 나오니까 본인만 뒤쳐지는 건 아닌지 고민했던 것 같다.

5조 김보윤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 12학번, 연합뉴스tv 기자. (지금 있는 부서는 디지털 뉴스부, 유튜브 콘텐츠 전담. 이전에는 사회부, 경제부)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1학년 때 동기들이 다양한 분야로 가고 싶어 하다보니 여러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에 참 많은 일이 있구나와 같이 이런 것들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게 좋았다. 그리고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때문에 법을 무조건 듣게 되어 있는데 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웠던 게 내가 어느 분야에서든 잘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법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게 됐고, 결국은 자전전공학부를 선택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여러 생각을 가진 동기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학교에서 나의 성향이나 성격을 파악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바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주고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를 좋아하는 성격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변을 보니 많은 사람이 뉴스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언론 분야에서 취직해서 정보를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언론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막연히 아나운서를 생각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노력 대비 처우가 별로여서 급선회하여 기자를 선택했다. 고대에서 배운 것들, 특히 법을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1, 2학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고, 3학년 때도 진로 탐색에 별 생각이 없었다. 지금 소속된 동아리에서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등의 단기적인 고민들 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4학년이 되었고,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빨리 취업해야겠다고 생각해 졸업을 빠르게 하고 취업하게 된 케이스이다.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학교 생활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게 아쉽다.

6조 유희준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15학번. 졸업 후 경영컨설팅, mna 재무자문컨설팅 관련 업무 담당.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니 자유전공학부가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자전에서 많은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업을 내가 평생 하면 행복할까, 이 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에게 잘 맞을까 등의 고민들을 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렇게 하나하나 가능성을 테스트 하다보니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단기간에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다루면 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영 컨설팅을 선택하게 되었다. VC, 스타트업 등을 추후에 해보고 싶는데 우선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단기간에 범용적 스킬셋 습득해서 꿈을 실현하고 싶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1, 2학년때까지는 큰 고민 없이 즐거운 활동, 재밌을 것 같은 수업을 들었다. 3, 4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진로고민을 시작했다.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인턴 때는 어떻게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했다.

7조 000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2015학번.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원래 법조인을 꿈 꾀 자전에 진학하게 되었다. 자전의 장점 중 하나가 2학년 때 전공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 좋았다. 결과적으로 경제학을 선택하면서 금융권에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장점였다고 생각한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경제학을 제1전공으로 선택하여 자연스럽게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민간 분야에서도 공적인 의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첫 직장이 기업은행이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주제로 일을 했던 것 자체가 가치 있었다. 지금 근무하는 곳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체이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학교를 다니다 보니 진로 설정이 바뀐 케이스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던 것 같다.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3, 4학년 때는 취업 준비 이런 거 고민할 시기니까... 이런 고민이 제일 많았고, 앞서 여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게 빨리 취업하긴 했는데 너무 취업 압박에 쫓겨 학교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

8조 이정준 선배님

질문1. 자기소개

자유전공학부 09학번. 취업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 (취업컨설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질문2. 자유전공학부가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큰지.

09학번이라서 법을 의무적으로 듣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다양한 가능성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자유전공학부가 나에게 있어선 큰 밑거름 됐다고 생각한다.

질문3.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과정.

어렸을 때 꿈이 정신과 의사였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국어국문학이 제1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말 듣는 일을 하다가 구매업무를 했다. 하지만 이와 적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 취업컨설팅 일을 하기 시작했다.

질문4. 지금의 저희 나이 때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남북통일이 돼서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군대 제대 이후, 여자친구와의 연애 고민도 있었고, 창업 관련 고민도 있었다. 회사를 만들고 수익구조를 못 찾아서 취직을 했다. 그저 눈 앞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것 같지만 이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이재민: 자유전공학부 학생회가 매년 색다른 매력과 생기가 넘치는 장으로서 기획했던 '자전인의 밤' 6회가 벌써 끝이 나네요. 비록 대면 행사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기쁨을 주었던 행사였습니다. 더욱이 개교 이래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서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힘을 모아 준 우리 자유전공학부의 훌륭한 교수님들과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들, 길라잡이 동료들과 소중한 문화국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우리 학우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한 한해였지만 내년에는 우리 '자전인의 밤'-나아가 우리 고려대학교의 밤이 더욱 빛나는 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회 문화국 사랑한다!♥

최희정: 작년에는 '자전인의 밤'을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비대면이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만, 학생회원으로서 마지막 행사가 이 '자전인의 밤'이라는 것이 행복하네요! 진행자로서, 기획자로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준비과정에서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문화국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전 사람들의 따뜻함에 용기를 얻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대 학생회 '길라잡이'의 문화국에 소속해 있으면서 자전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기획해왔던 행사들을 통해 자전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국 덕분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김주연: 문화국의 꽃! 자전인의 밤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며 함께 고생한 문화국원분들과 학생회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자전에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주시는 선배님과 교수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행사에 즐겁게 참가해주신 학우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뿌듯한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쓴소리까지 모두 감사했습니다!

김민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대면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겨주셔서 행사를 준비하며 걱정했던 부분들을 털어내고 웃으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기획하며 새벽까지 함께 고생한 문화국장님과 문화국원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밤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선배님들,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양은서: 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는 자전인의 밤을 성황리에 마치게 되어 기쁩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비대면 행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는 등의 시도를 끊임없이 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행사 준비를 하면서 수차례의 수정과 피드백을 끝까지

함께 했던 문화국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 분들과 함께여서 다행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리허설에 참여하여 피드백을 주신 모든 집행부원, 본행사에 참여해주셔서 마지막까지 즐기다 가신 학우분들, 선배님들, 그리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가경: 문화국의 가장 주된 행사인 자전인의 밤을 마쳤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결코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지금 그 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지만, 행사에 즐겁게 참여해주시는 학우님들, 선배님들, 교수님들을 보면서 문화국원으로서, 또 집행부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을 전부 느낀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내년에는 더 노련하고 체계적으로 알찬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국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린: 올해 자전인의 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진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지만 올해에는 비대면으로나마 개최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한 행사 진행은 처음이어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대면 행사의 정취를 느끼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신 다른 학생회 분들과 교수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자유전공학부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 다른 국원 분들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유승원: 정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1번째 리허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1번째 리허설 때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다른 학생회 부원분들을 초청해서 리허설을 완전히 망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풀이 죽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정말 3일동안 힘을 합쳐서 완벽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ㅠㅠ 일단 부원분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고 죄송했다고 말하고 싶고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선배님들, 교수님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년은 제발 대면으로!)

행사 사진

